

‘운영위원 화합 · 역량 강화의 장’

건협 전북, 운영위원 결속 · 상호 협력 증진... 주요업무 · 지역 건설업계 현안 공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3일 세종필드 GC에서 회장단 · 운영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 화합 · 역량 강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협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운영위원들의 결속과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협회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지역 건설업계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계선 협회 고문변호사를 초빙해 건설업 분쟁관련 고소 고발장 작성 및 분쟁발생시 해당 사례와 가장 유사한 판례 검색을 통해 법적 분쟁과 리스크에 대한 판단력과 분쟁해결을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3일 세종필드 GC에서 회장단 · 운영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 화합 · 역량 강화’ 행사를 개최했다.

지원해 주는 법률 AI 슈퍼 로이에게 다. 이날 소재철 회장은 “급변하는 시대

에 발맞추어 건설산업이 묵은 산업이 아닌 시대에 부응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본회와 함께 시를 활용한 건설 산업 전문 챗봇을 도입해 회원사의 문의 응대는 물론 다양한 건설업무 시스템과 연계를 진행하고, 당면 과제인 신규물량과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현실에 맞는 표준품셈 적용과 지역내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추진하여 올바른 공사비 속 참여물량 증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 간 화합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과 강연을 수시로 제공해 임직원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Lovely Concert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은 지난 3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Lovely Concert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경기’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 사랑 · 문화 나눔 확산과 비변 일상으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 순회공연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올해 5회로 예정된 권역별 콘서트 중 세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경기지역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프리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윤승업 지휘자, 김재형 테너, 길병민 바리톤, 박성희 소프라노, 김순영 소프라노, 고아라 재즈보컬리스트, 쇼와이그림 하모니즈 등이 출연해 대중에게 익숙한 클래식 명곡, 영화 OST, 추억의 팝송 등을 연주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곡의 분위기와 내용에 맞게 제작된 영상을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함께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Lovely Concert를 7년째 이어오면서 우리 콘서트를 통해 힘을 얻어간다는 중소기업 가족들이 많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문화 · 예술을 통해 비변 일상으로 지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하며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진흥원,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 외 협력 강화

전북 푸드테크기업간담회 · 한네덜란드 대체단백질 융합 포럼... 글로벌 기술 교류 · 실증 생태계 기반 마련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푸드테크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최근 도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한네덜란드 대체단백질 융합 포럼’을 연이어 개최하는 등 지역 기반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는 2023년 출범한 푸드테크 분야 산 · 학 · 연 · 관 협의체로 대체식품과 스마트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52개 기관 및 기업이 교류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숫자 ‘42’는 영국 작가 더글러스 애덤스의 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의미한다. 지난 7월 1일 개최된 ‘전북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는 푸드테크 관련 기업 10여 곳과 바이오진흥원, 국립식량과학원,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참여하여 △원료(종자)개발 △제품화 △인허가 △관로개척 등 푸드테크 사업화 전반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바이오진흥원은 간담회에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개발기술 이전 · 사업화 △가능성평가(임상) △해외 인증 △인식개선 홍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기업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2일에 열린 ‘한네덜란드 대체단백질 융합 포럼’은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연구팀을 비롯한 국내 · 외 산 · 학 · 연 · 관 관계자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대체식품 기술 동향과 실증 전략을 공유하는 국제 기술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주한네덜란드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하이브리드 대체육 대량생산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Rene Wijffels 교수의 기초연설로 시작해 대체단백질 종류와 글로벌 산업트렌드, 배양육 생산기술 및 실증 사례, 버섯배양/고수분 대체육/해조류 관련 기업의 산업화 사례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2025 농업미생물자원 국가관리기관 공동연수회’ 열어

농촌진흥청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경북 안동에 있는 국립경국대학교에서 ‘2025 농업미생물자원 관리기관 공동 연수회’를 열고, 농업미생물자원의 전략적 활용과 산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농업미생물자원 관리기관 공동 연수회는 농업미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 보존 체계 구축, 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미생물자원 관리기관으로 지

정된 전국 10개 기관이 참여해 ‘농업 미생물자원의 산업적 다각화’를 주제로 단계별 전략을 모색했다.

참여기관은 중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군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농축산생명산업융합육성지원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기관별 자원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관리 체계 장점과 보완점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했

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은 기능성 미생물 환경친화적 미생물 소재 개발과 활용 등을 포함한 실험실 높은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기관 간 상호 활발한 교류와 토의가 이어지면서 자원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미생물 산업화 전략 수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상근 기자

전북먹거리 통합플랫폼 개통

홈페이지 오픈... 14개 시 · 군 먹거리 한곳에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공식 홈페이지(<https://www.jfr.kr/jfood/>)를 새롭게 개설하고 온라인 기반의 통합 정보 제공에 나섰다.

홈페이지는 전북먹거리센터의 역할과 수행 사업, 활동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운영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전북 14개 시 · 군 센터의 정보와 현장 소식도 함께 공유해 광역 먹거리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먹거리 속의기부’ 메뉴를 통해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먹거리 논의 구조가 마련되었고, ‘먹거리위원회’ 메뉴를 통해 위원회 운영 현황과 회의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의견 제출과 참가 신청 기능도 함께 운영되어 도민 참여형 정책 실현의 창구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는 최신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PC는 물론 모바일



과 태블릿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고 도민에게 먹거리 정책과 각 시군의 실천 사례, 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대상 정책 정보 접근성 확대 △먹거리 거버넌스 기반 강화 △시민참여 확대 △지역 먹거리 활동 홍보 강화 등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전북형 먹거리 정책과 현장의 정보가 보다 쉽게 전달되고,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열린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먹거리 정책의 공감대 확산과 소통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사회공헌 성과 공유 · 협력 방향 논의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사회공헌활동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4일,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방안을 논의하고자 도내 기업 및 복지기관과 함께 ‘2025년 사회공헌활동 참여기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진흥원과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체결한 기업 및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회공헌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방향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바이오진흥원은 사회공헌 활동의 전문성과 범위 확대를 위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돌봄 · 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을 확장해왔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한 명절 나눔 활동, 아동 대상 기부행사 등 이웃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헌혈 행사, 김장 나눔 장애인과 함께 하는 꾸밈 클래스 등 지속적인 참여형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올해 역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책임 경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이러한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간담회 참석자들은 2025년에는 ESG 경영과 지역사회 연계를 더욱 강화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바이오 · 식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활발히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에는 ‘자연탐구 수련회’와 연계한 생명 존중 교육형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눔 행사, 연말 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임직원 참여형 활동이 이어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